

남선교회

서울노회남선교회연합회 교육상 수상 매년 남선교회 주관 전교인 야외예배



제2남선교회 수련회 기념(광림수도원) - 1992



제5남선교회 회기를 마친 회원들 - 1994



제4남선교회 성경공부를 마치고 - 1995



제3남선교회 신앙수련회 기념(강화수양관) - 1998



제4·5·6남선교회 신앙수련회 기념(강화수양관) - 1999



제1·2남선교회 성경공부(당회실) - 2000

1994년 11월 41세 이상을 5세 단위로 구분해 제1·2남선교회를 제1·2·3·4·5·6 남선교회로 다원화·효율화를 꾀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성경공부를 비롯해 수련회와 개척교회 및 구제기관을 돕는 일은 한결같다. 제1·2의 전교인 야외예배, 제3의 연동산우회, 제4·5·6의 고등부학생과 1대1 기도후원 등은 특징적인 사업의 하나이다. 서울노회남선교회연합회 활동에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1993년 제35회와 2000년 제42회 정기총회에서 교육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도학교

영혼구원 위한 복음 전도자 훈련 김영걸 부목사 헌신적 지도 사역



제1기 수료

1992년 5월 31일 저녁예배 때 전도요원 제1기 수료식을 거행했다. 신청자는 34명이었으나 8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29명이 수료하게 된 이들은 영혼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서 자격을 구비한 것이다. 전체 12교구에서 각 교구마다 1명 내지 3명이 수료했는데 산업부에서는 5명이 배출됐다. 수료생 가운데 영예의 우수상은 김옥배 집사가 받고 개근상은 석찬복 집사 외 9명이 받았다.



제2기 수료

1997년 6월 29일 오후예배 후 전도학교 제2기 수료식을 거행했다. 수료자는 41명(남 4·여37)이었다. 3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14주 동안(매주 수요일·목요일) 김영걸 목사에게서 전도의 필요성·방법·내용·실습과 새신자론·문서전도 등을 배웠다. 6월 12일(목) 김영걸 목사와 전도학교 1·2기 수료생 30명은 신사역(지하철 3호선)을 중심으로 노방전도를 실시했다.



제4기 수료

1999년 6월 28일 오후예배 후 전도학교 제4기 수료식을 거행했다. 3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28명(남6·여22)이 매주 수요일(오후 4시)과 목요일(오후 7시)에 김영걸 목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전도학교 교육은 복음전도 뿐만 아니라 기도·성경공부·친교·봉사 등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게 하고 영혼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자를 양육하는데 있었으나 그 이후 명맥이 끊겼다.

1992 연동음악회

연못골남성중창단 합창곡 선보여 국내 정상급 음악인들 특별출연

1992년 9월 4일 본당에서 연동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0명으로 구성된 연못골남성중창단이 첫곡 '예수 나의 구세주'를 열창할 때 1·2층 좌석을 메운 성도들은 열광했다. 이어서 과거 연동교회 성가대원이자 지휘자였던 바리톤 신경욱 교장(서울예고)과 테너 임정근 교수(경원대), 소프라노 김희정 교수(경희



대)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등단할 때 음악회는 절정에 다다랐다. 이날 메조소프라노 강화자 교수(연세대)와 난파소년소녀합창단도 특별출연했으며 피아노는 이성균 집사(서울대), 지휘는 최흥기 집사(서울시립합창단 지휘자)가 담당했다. 음악회가 끝난 후 친교실에서 출연자와 다과회를 가졌다.



사진 상 : 연못골남성중창단 · 중 : 난파소년소녀합창단 · 하 : 음악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우간다 김정윤 선교사

영성훈련원 봉헌해 영성훈련 실시 간호사 양성에 이어 전도원 훈련



간호 보조사 졸업생 - 1992



부인 성경공부 수료식을 마치고 - 1995



동역자와 기도로 봉헌한 영성훈련원 - 1998



1985년 2월 연동교회에서 우간다에 파송한 김정윤 선교사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마 19:26)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를 독신으로 금년 20년째 감당하고 있다. 동년 6월 간호학교를 열어 1987년 7명을 졸업시킨 이후 간호사 교육과 평신도 훈련을 실시, 1993년 5월 간호 보조사 132명을 클루바병원에 투입했다. 그 후 간호학교 교장직을 사임하고 사역지를 클루바병원에서 80여킬로미터 거리의 폴리진료소로 옮겼다.(1999년 보건소로 승격) 1994년 2월부터 영성 훈련을 위한 사역을 계획하고 영성훈련원을 건축해 1998년 8월 영부인 참석하에 봉헌예배를 드렸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보건소장을 역임한 뒤 2000년 전도대원 훈련 과정을 실시하고 2001년에는 예방보건을 전인구원 사역으로 명명, 전교회가 참여하도록 했다. 2002년 7월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 등 28명이 찾아가 위로하고 영성훈련·주일학교·의료사역 등 많은 봉사를 하고 돌아왔다. 2003년 11월 343명



영성훈련에 참가한 전인구원 사역자들 - 2003

에게 전인구원 사역훈련과 영성훈련을 수료시키고 12월에는 제3회 전도자 수료식을 거행, 이때부터 60여명의 전도대원이 전도사역에 나섰다.

김정운 선교사는 에이즈 예방교육과 전인구원 및 전도사역과 영성훈련 사역을 위해 오늘도 기도와 정성, 헌신과 사랑을 베풀고 있다.

2004년 3월 11일 필자에게 보내온 서신 끝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선교회 고명환 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문안을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풍성해지며 주 우리 하나님께 넘치는 평강과 복으로 찬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대원들이 전도훈련을 받고 - 2003



우간다에서 보내온 전통악기



단기선교팀(게일찬양대에서 수집한 시계 전달) - 2002



월드컨선 책임자와 전인구원 훈련자들 - 2003

연동의속

1979년 개설해 2004년에 25주년
250명 학생이 최근 85명으로 줄어



가을 소풍(덕수궁) - 1992



성가경연대회 - 1996



예배와 찬양 - 1995

1979년 9월 문을 연 연동의속(노인 대학)은 1991년도에 재적수 남학생 30명, 여학생 220명(총 250명)이었고 그 중 연동교인은 23명(남 3, 여 20)이었다. 사회적으로 노인들을 유지하는 기관이 늘어 2003년에 이르러 전체 학생은 8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주요 교과과정은 매 수요일에 경건예배·심내운동·특별활동·식사시간으로 짜였고 매월 첫 수요일에는 특강(강사), 끝 수요일에는 생일축하와 미용이다.

역대속장은 다음과 같다.

제4대 황삼남(89-91) / 제5대 김기환(92-94) / 제6대 노강진(95-97) / 제7대 이지연(98-00) / 제8대 이현정(01-03) / 제9대 김경옥(04-)



탁구반 학생들의 몸찬양('사랑해 당신...') - 2000



학생보다 젊은 의속 교사 일동 - 2004

네 팔 정현숙 선교사

주선미 선교사 이어 정현숙 선교사 파송 장미회에서 건립한 가우리상카병원 사역



돌카지역 가우리상카병원 전경 - 1991



일과 직전 직원들의 성경공부(왼쪽에서 두번째 : 주선미 선교사) - 1992



카투만두사무소 앞에서 정현숙 선교사(왼쪽)와 박종철 장로(중앙) - 1994



1994년 3월 9일 수요일예배 때 정현숙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렸다. 총회세계선교부 총무임 순삼 목사의 선교(그리스도의 비밀)와 장미회 회장 박종철 장로의 격려사가 있는 후 네팔 초대 주선미 선교사(85쪽 참조)에게 공로패 수여도 있었다.

정현숙 선교사는 1961년생으로 진주간호보건전문대를 졸업, 1987-199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봉사한 간호사로 주선미 선교사에 이어 네팔의 가우리상카병원(일명: 돌카병원)에서 근무하게 됐다.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에서 130여 킬로미터 지점 돌카지역에 위치한 이 병원은 1989년 1월 의료선교 단체인 장미회에서 건립(건평 200평)해 진료실·약국·수술실·치과실·검사실·X-ray실 외 20개 병상을 갖추고 한국인 의사 1명, 네팔인 의사 1명과 10명의 간호사 및 직원들이 주민들의 건강과 보전에 힘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1971년 1월 기독교사회 회장을 역임한 박종철 장로(서교동교회)가 중심이 되고 세브란스병원 의사인 이삼열 장로 등 기독교사들이 진료를 시작해 설립한 사단법인 장미회는 1985년부터 힌두교 국가인 네팔에 의약품을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인연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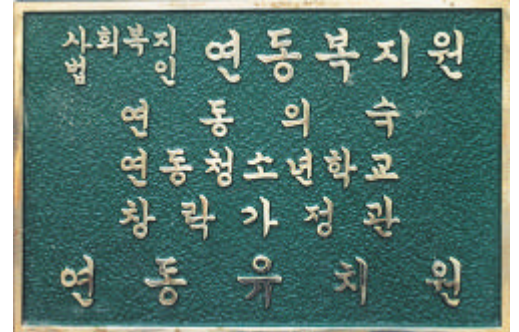
정현숙 선교사는 2년만인 1996년 4월 사임, 이로써 연동교회 국제선교회는 네팔 선교의 막을 내렸다.

연동복지원

'100년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관
새로운 비전을 세운 전문적 사회복지 기대



창락가정관 노인정 노인위로회 - 1994



종로구청에 독거노인 후원금 전달 - 1996



무료급식사업 일환의 점심 대접(친교실) - 1998



강화수양관에서 열린 연동복지원 연수회 - 2001



연동작은형제의집을 찾은 은퇴권사들 - 2003

1994년 교회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100년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연동복지원은 그 산하에 연동의숙(노인학교: 1979년 설립)·연동청소년학교(야학: 1981년 개교)·연동누상어린이집(보육시설: 1994년 설립)·연동원로

관(노인의 집: 1998년 설립)·연동어린이집(보육시설: 1999년 개원)·연동작은형제의집(장애인 시설: 2002년 인수)을 두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있다. 2004년 3월 의욕적으로 '연동복지원의 미래를 위한 구상'(13쪽)을 제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